

2019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경상북도 대구
- 대평지역아동센터



2019. 8

최*지

지난겨울에 이화봉사단으로 대평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 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 자신 있게 팀장 역할을 맡았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미 이화봉사단 경험도 있으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비 기간과 활동 기간을 거치고 나니 팀장 역할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센터의 특징, 아이들 성향 등을 알고 있다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자신했지만, 더 참신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나의 말로 인해 단조로운 활동이 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다. 이외에도 팀장으로서 미숙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팀원들이 항상 응원해주고 많은 도움을 주어서 수월하게 활동을 끝낼 수 있었다. 거의 모든 활동을 끝낸 지금, 돌이켜보면 팀원들이랑 마음도 잘 맞고 그들이 버팀목이 되어 줘서 이렇게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이들은 여전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고, 평소엔 느낄 수 없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5일을 보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웃어주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며 나를 웃게 할 땐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행복감을 경험했다. 물론 처음엔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멘티도 있었고, 수업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 걱정스러운 멘티도 있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을 걸고 진심으로 함께 하고 싶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 어느새 모든 멘티가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와 주고 있었다. 가슴이 벅찰 만큼 큰 감동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연 멘티들과 곧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다. 대평 센터에 재방문하면서 지난번보다 훨씬 수월하게 활동을 진행하였고, 아이들에 대한 감정도 정리할 수 있어서 깔끔하게 마무리한 후회 없는 활동이었는데, 겨우 마음을 연 멘티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아직도 마음에 많이 남는다.

이번 활동에서는 멘티들이 아닌 멘토와 센터 선생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번에는 아이들을 대하는 활동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만 신경 쓰느라 주위를 볼 정신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여유가 생겨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과 다른 멘토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많이 배우게 되었다. 꼭 아이들을 대할 때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때 이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확실히 첫 활동보다는 마음이 여유로웠다. 그만큼 활동하면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었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활동인 만큼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았고, 스스로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이화봉사단을 하고 싶다. 다음에는 다른 센터를 방문하여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면서 또 다른 행복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유*영

봉사단을 떠나기 전에는 설렘도 있었지만 걱정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멘티들이 흥미로워할지도 걱정되었고, 어린 멘티들에게 설명이 어렵게 들리지는 않을까도 생각했습니다. 걱정이 많아서인지 4박 5일의 일정은 한없이 길어보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멘티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걱정보다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오히려 걱정조차도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멘티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멘티들과 대화할 때는 그저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멘티들이 고맙게도 첫날부터 밝게 웃어주면 반겨주고, 마음을 열어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멘토들과도 즐겁게 다음날 일정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들과의 관계도 봉사가 즐거웠던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날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생각할 정도로 아쉬웠습니다. 멘티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멘티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멘티들의 따뜻함에 제가 더 많이 배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

멘토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 얻어가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았다.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다. 앞에 나가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일이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많이 두려웠다. 먼저 다가와 주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는 모습에 감동 받았고, 이제 친해졌는데 헤어지려니 정말 아쉬웠다. 봉사를 떠나기 전에는 5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짧은 시간이었다. 센터에 계시던 담당 선생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우리가 기획한 활동들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든든했다. 밤마다 다음 수업을 준비하면서, 힘들지만 기뻐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힘이 났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과 다른 멘티들과 정이 들어 헤어지기가 너무 힘들었다. 마지막 날 헤어질 때 더 자주 놀아 줄 걸이라는 후회가 들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받은 것 같아 고맙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김*나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먼저, 아이들은 작은 관심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말이 없는 아이들,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을 하는 아이들 등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이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 칭찬과 관심을 가져주었더니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마지막날에는 멘토, 담당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르고, 폭력적인 언어보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학습에 대한 동기를 제공해 주었다. 이번 한 학기동안 배웠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적용하면서, 아직 부족하고 배워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깨달았다. 내가 더 잘 알고, 교육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더 원활하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멘토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학기에 전공과 교육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여 이화봉사단을 비롯하여 교육봉사 활동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사실 이화봉사단을 준비하면서 국내교육봉사를 2회나 그 이상 연속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활동을 하고, 또 마무리하다보니 아이들과 4박 5일은 짧은 시간임을 깨달았다. 만났던 아이들을 더 챙겨줄 것이라는 아쉬움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궁금한 마음이 든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배워 이전에 남았던 아쉬움들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